재난의 불평등시대

코로나19위기 시대의 연대, 모이고 말할 권리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순 서

01 **누가 위험한가**
위험의 불평등

02 **이미 위험했다**
펜데믹 발생의 구조

03 **무엇을 위한 안전인가**
정부정책의 문제

04 **위험에 벗어나기 위해**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다

01 누가 위험한가!위험의 불평등

누가 감염되고 죽는가

■ 확진자 연령별 현황 (11.4 00시 기준)

구분	확진자(%)	사망자(%)	치명률(%)
80 이상	1,163 (4.32)	238 (50.21)	20.46
70-79	2,143 (7.96)	154 (32.49)	7.19
60-69	4,276 (15.88)	54 (11.39)	1.26
50-59	4,929 (18.31)	22 (4.64)	0.45
40-49	3,625 (13.46)	4 (0.84)	0.11
30-39	3,355 (12.46)	2 (0.42)	0.06
20-29	5,237 (19.45)	0 (0.00)	-
10-19	1,488 (5.53)	0 (0.00)	-
0-9	709 (2.63)	0 (0.00)	-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력하세요

나이가 많을 수록 치명률이 높다.
80대 이상 20.46% 40대 0.45%, 30대 0.06%
2020.11.04.중앙방역대책본부

01 누가 위험한가!위험의 불평등

누가 감염되고 죽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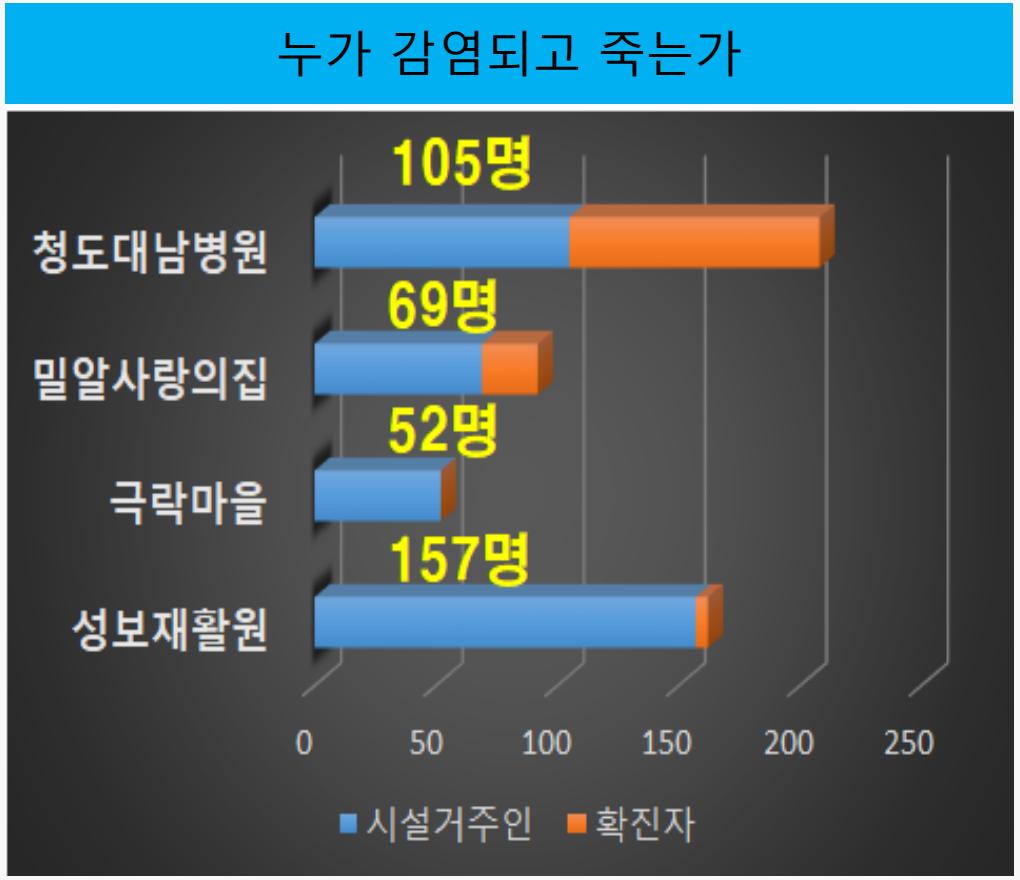
2월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

설명을 입력하세요.

20년간 입원한 그녀의 첫 외출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병원 이송이었다….
몸무게 42kg…
병들고 죽을 때가 되어야 나오는
정신병동, 수용시설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폐쇄병동) 103명 전원 감염.장기입원 기저질환자 다수
(사진,한겨레신문)

01 누가 위험한가!위험의 불평등



-뉴욕시 및 인근 지역 내 그룹홈 및 이와 유사한 기관 거주자들은 전체 인구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은 5.34배, 감염으로 사망할 확률은 4.86배 더 높다. (미국 뉴욕장애인권익옹호모임의 조사)

-유럽 지역 국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절반이 장기 요양 시설에서 나왔다 (2020.4.24.세계보건기구(WHO) 유럽 담당 국장 한스 클루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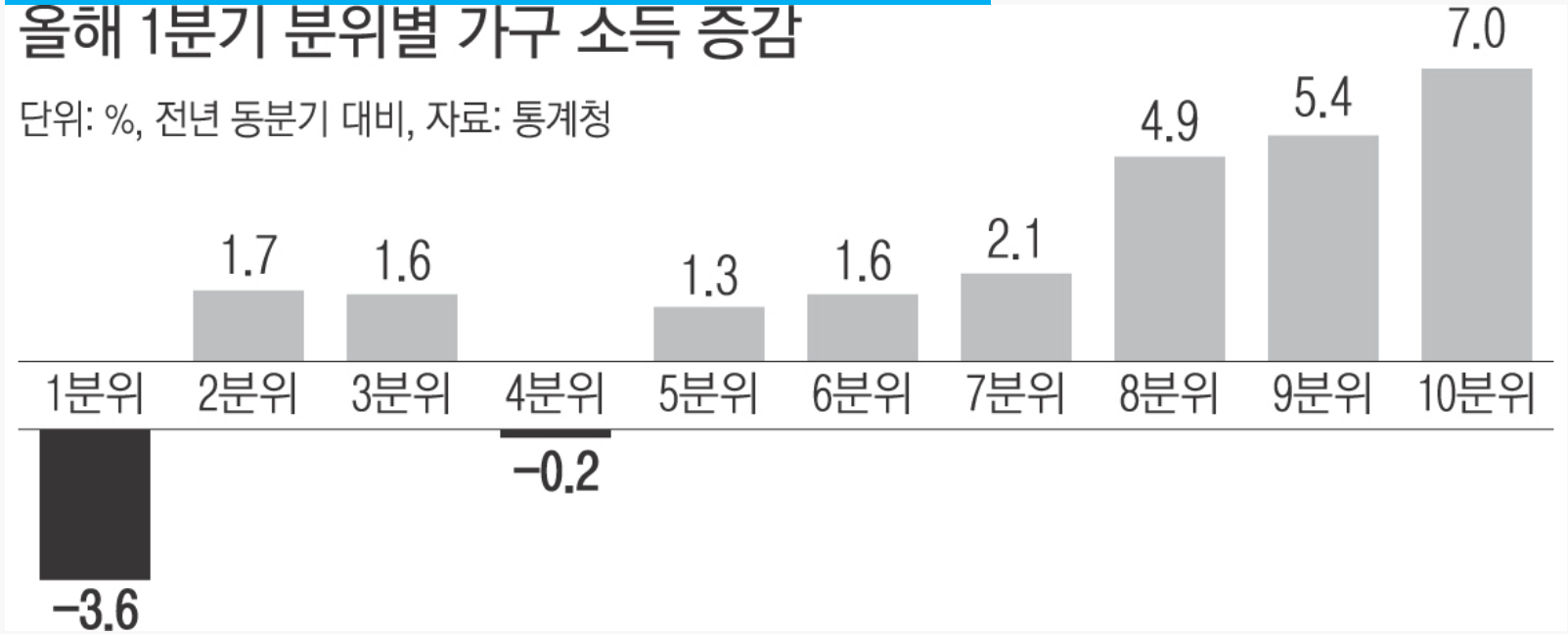
-미국 이저벨라 노인센터 98명 사망, 코로나로 인한 사망임을 나중에 밝혀져

-스페인 요양원 노인 시신 방치

노인, 장애인, 요양원,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
- 이동과 신체의 자유 없고, 과밀, 자기결정권 없고 환기와 위생 나쁘고 의료인력 부족하고

01 누가 위험한가!위험의 불평등

누가 생계의 위협을 받았나



설명을 입력하세요

-2020년 1분기 가계동향, 소득 하위 10%는 95만9천19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3.6% 감소
-실직경험자 12.9% 정규직 4%,비정규직은 26.3%
월 소득감소자 32.6%, 이 중 비정규직 52.8% 정규직 19.2% (직장갑질119 조사)

01 누가 위험한가!위험의 불평등

누가 생계의 위협을 받았나

특수고용노동자?

: 화물, 건설기계, 셔틀버스, 대리운전, 퀵서비스, 경마기수, 간병인, 방과후강사, 학습지교사 등 250만 노동자가 '특수고용'으로 분류돼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음.

~~근로계약서~~ ~~4대 보험~~ ~~보험3권~~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떨어뜨렸다.

-그들은 이미 노동자의 권리도 없었기에

학습지교사 20년 동안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은 처음이에요.
임금이 **반토막** 났어요.

방문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꼬박 마스크를 착용**해요. 마스크를 하루에 1개씩 사용하는데 2~3월 두달동안 회사에서는 마스크 8개만 지급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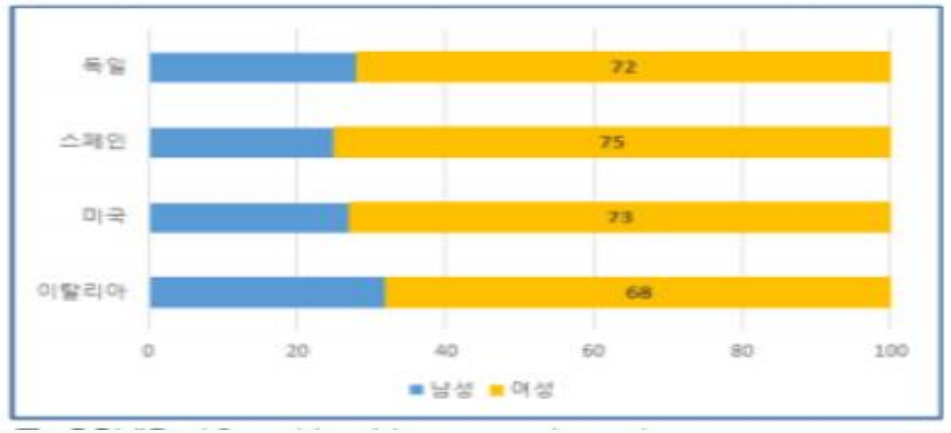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준다고 선전하는데,
학습지교사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한 곳은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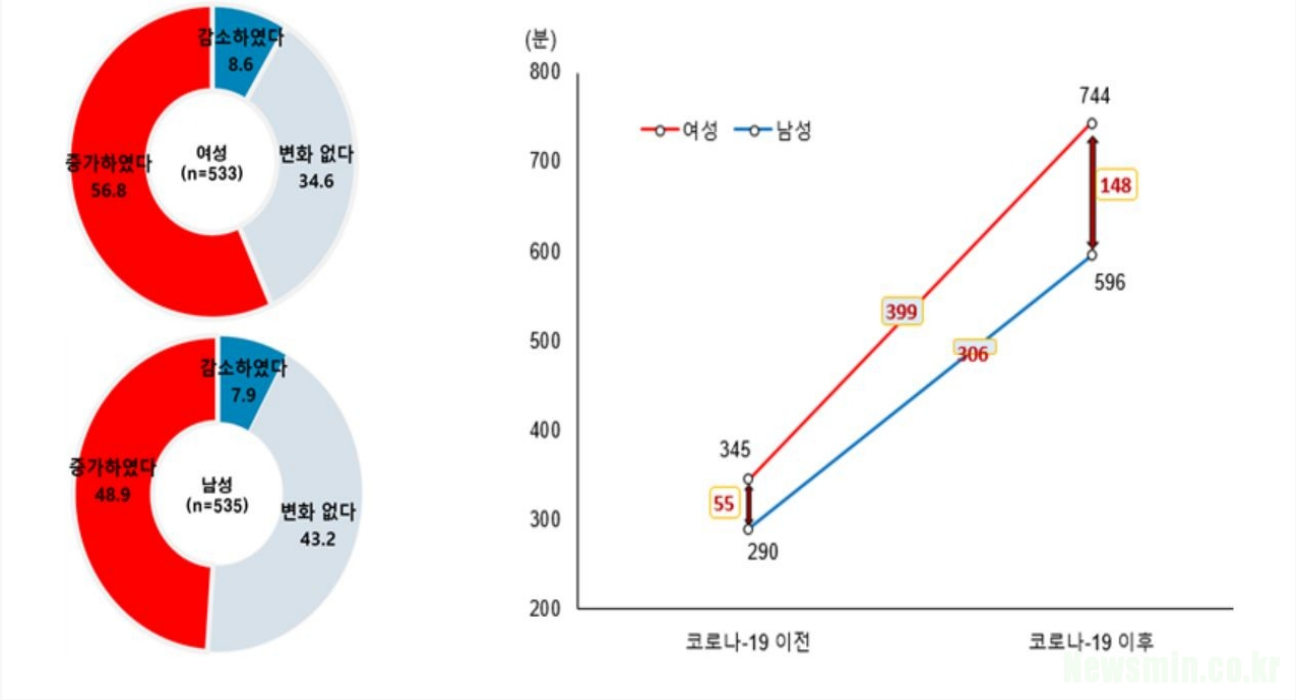
특수고용노동자라 **4대 보험이나 상여금, 퇴직금은 꿈도 꾸지 못하고** 월 소득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데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상 지급 대상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요.

정부는 지원에도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았더군요.

01 누가 위험한가!위험의 불평등

젠더불평등이 낳은 건강과 노동의 위험





- 돌봄 직종에 주로 있어 위험에 처한 여성노동자 (oecd 조사 세계의료,돌봄종사자 70%여성)
- 코로나19로 가사노동이 증가한 여성노동자
- 일터에서 가장 먼저 쫓겨나는 여성노동자

01 누가 위험한가!위험의 불평등

위험은 분배의 대상이며, 빈곤은 불행하게도 위험을 만연시킨다.
그와 반대로 (수입, 권력 또는 교육의 면에서)부자는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자유를 사들일 수 있다
-울리히 벡

02 이미 위험했다펜데믹 발생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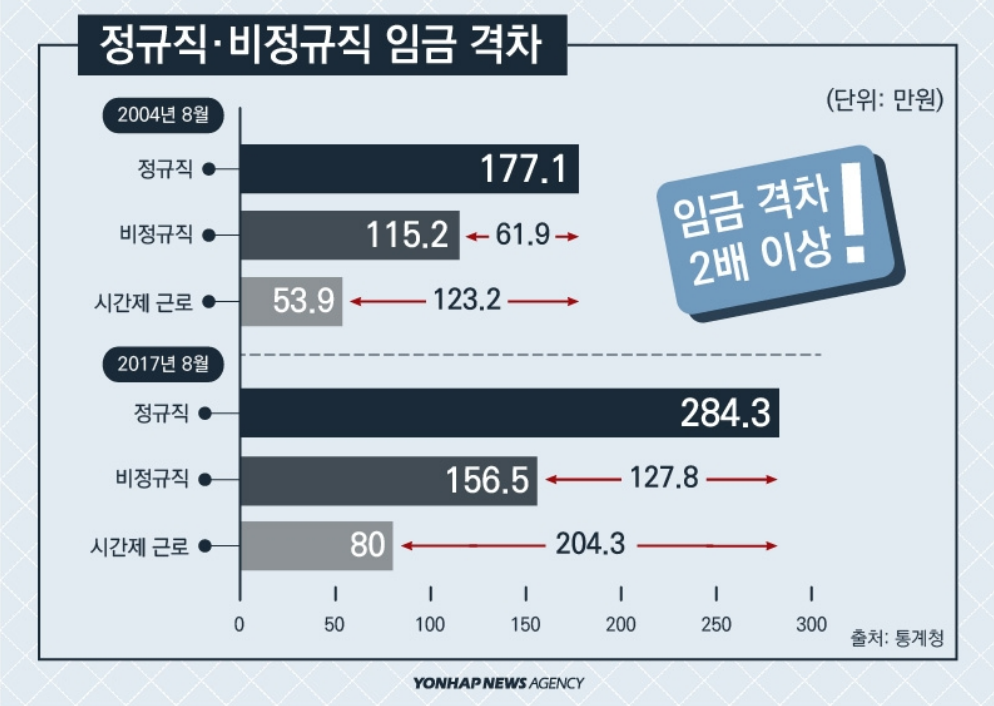
누군가에게는 이미 위험한 사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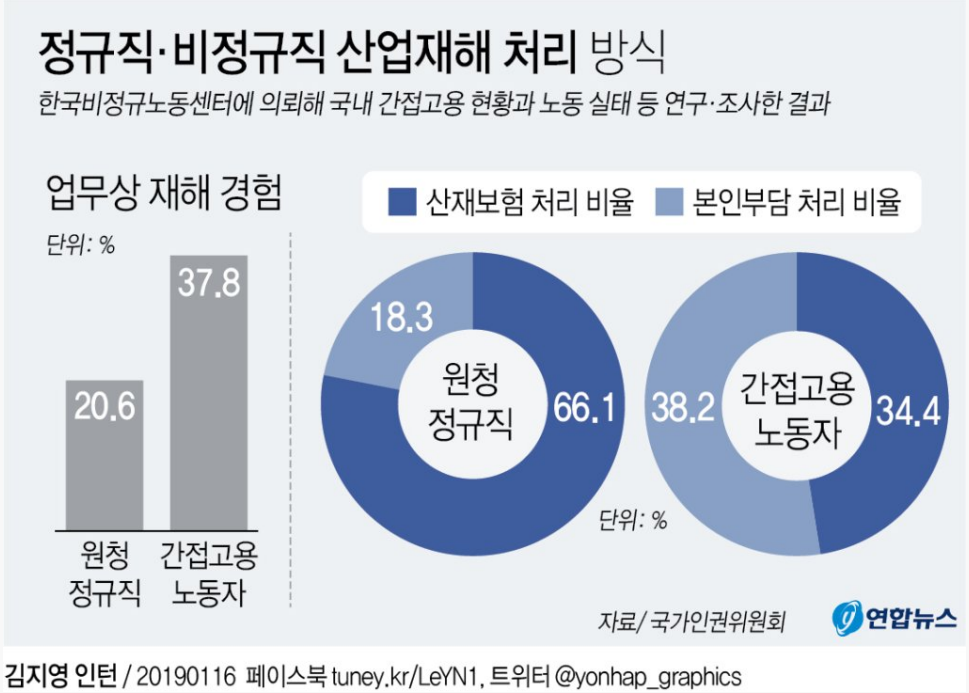
- 신규 장애인거주시설은 정원 30인 이상 불가 (2011장애인복지법개정)
- 30인 이상의 대형시설 319개 19,000명 수용
- 1인 1실이 지원되는 시설은 단 한곳도 없음1개 생활실당 5명이 초과되어 생활하는 비율은 40%. 정신요양시설 62.7%가 1개의 생활실에 6명 이상 거주 (2017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3만명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폐쇄병동) 103명 전원 감염.장기입원자, 기저질환자 다수

02 이미 위험했다펜데믹 발생의 구조

누군가에게는 이미 위험한 사회였다





2018년 3월 통계청, 2019년 국가인권위

02 이미 위험했다펜데믹 발생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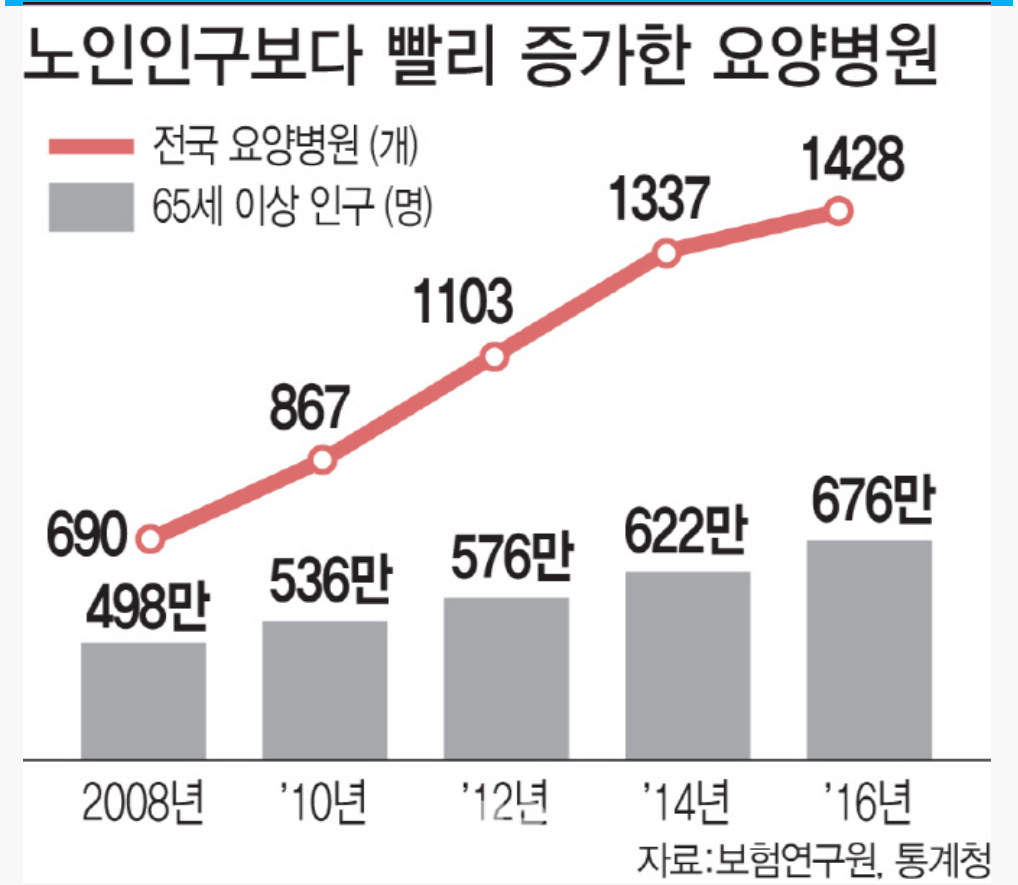
누군가에게는 이미 위험한 사회였다

- 신규 장애인거주시설은 정원 30인 이상 불가 (2011장애인복지법개정)
- 30인 이상의 대형시설 319개 19,000명 수용
- 1인 1실이 지원되는 시설은 단 한곳도 없음1개 생활실당 5명이 초과되어 생활하는 비율은 40%. 정신요양시설 62.7%가 1개의 생활실에 6명 이상 거주 (2017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3만명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폐쇄병동) 103명 전원 감염.장기입원자, 기저질환자 다수

02 이미 위험했다펜데믹 발생의 구조

누군가에게는 이미 위험한 사회였다



분류	구체적 행위 양태	사례 수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주먹으로 때리거나 꼬집기 등	10
	장시간 동안 신체보호대 사용	18
	일과표 강요	5
	입원실 안팎 입·출입 제한	16
고문 및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취급으로부터의 자유	고함이나 윽박지르는 행위	15
	위협적인 행동	7
	욕설이나 상스러운 언어	9
사생활 보호	신체노출 필요성 비고지	5
	환자의 사생활 발설	4
	가림막 없이 기저귀·의복 교체	18
최고 수준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의 권리	치료 목적 외에 환자에게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 혹은 주사 투약	4
구제 및 보호 조치	고발 및 신고 접수 신고함 등 미설치	26
	학대 신고전화 포스터 등 미비치	43
	신고자 비밀보장 등 보호조치 체계 부재	30
	학대 가해 직원 처벌규정 부재	46

2018. 노인돌봄도 돈벌이, 주간보호서비스는 부재, 노인학대와 방치 증가의 구조

03 무엇을 위한 안전인가!감염병대책

누구를 위한 감염병대책인가

"코호트 격리가 발표가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별로 선제적 코호트, 예방적 코호트, 이름이 되게 많은데 결국은 다 똑같은 건데 결국은 그냥 그 코호트 증상자가 없더라도 그냥 할 수 있는 코호트들을 많이 발표 했잖아요. 경기도도 발표하고. 실제로 코호트는하나도 안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나서 시설 종사자들도 출입 금지가 됐었어요. 오고 가는 게.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 공식적으로 오고 가는 게 금지된 거고, 따로 들어보니까 오고 갔더라고요. (웃음) 왜냐하면 얘네도 답답해서 못 있겠는 거야. 나보고 이 시설에만 살라고? 그러니까 이쯤 되면 드는 생각은 야 이거 진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코호트정책이 맞는 거야?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인 거야? 이런 헷갈림이 있었고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설 장애인들이 확실히 그 안이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이라는 거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료만 봐도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는 거죠. 환기가안 되고 화장실을 다 같이 여러 명이 쓰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계속 그거를 보도자료를 썼어요. 그 사이에 건물이 바뀌진않았을 텐데 환기도 안 되고 화장실도 여러 명이 쓰고 그리고 사실 시설에 가면 지금은조금 괜찮을 수 있는데 강원도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한 열 명이 살잖아요, 그러면 밥을여기 세숫대야에 다 같이 말아서 줘요. 여기 수저 넣고 다 같이 퍼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거든요. 약간 강아지 밥 처럼 먹는데, 그런데 어쨌건 그런 것들이 분명히 감염에 엄청 취약할 상황일 수밖에 없고 비인권은 둘째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 전장연에서 하고 있지만 모니터링은 사전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서." (장애인활동가 1)
-코로나19 시민백서 중

코호트격리 (동일집단 격리) 독립적 공간과 치료시설과 인력 있어야 가능
예방적 코호트격리? 거주자만 아니라 보호사 등 의료인력의 거주공간도 없이 출입차단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주류집단을 위한 코호트

03 무엇을 위한 안전인가

감염병예방법 근거로 집회시위 전면금지

문중원 열사 추모공간 철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농성천막 철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서울시가 지정한 집회금지 대상 장소>

○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도로 및 주변 인도
○ 신문로 및 주변 인도
○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

03 무엇을 위한 안전인가

감염병예방법 근거로 집회시위 전면금지

집회신고하면 금지구역으로 설정
용역들의 강제철거는 협조

03 무엇을 위한 안전인가

감염병예방법 근거로 집회시위 전면금지

[서울지역 집회금지 일지]

일자	내용
2월 21일	동작구청, 노량진구수산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2월 21일	서울시,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과 주변 차도와 인도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집회예정 17개 단체에 집회금지 공문을 발송
2월 24일	서울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와 전광훈 목사 등 관계자 10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
2월 26일	서울시,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청와대 앞길)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신문로(경희궁~광화문광장) 및 주변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삼청동)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을 집회 제한 구역으로 새로 추가
2월 27일	서울시와 종로구,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가 설치한 천막 7개 동과 집회물품 철거
2월 28일	동작구, 3월 31일까지 ▲노량진역광장▲노량진로▲장승배기로▲구청주변 차도·인도 및 광장 집회금지
3월 12일	서울시, 광화문 광장 '전두환 심판' 농성 천막 철거
3월 14일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은행로 ▲국회대로 ▲여의공원로 ▲당산로 일부 집회금지
3월 18일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 ▲동대문구청 주변 ▲청량리4구역 주변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현장 주변 4월 30일까지 집회금지
3월 24일	서초구 4월 5일까지 서초구 전 지역에서 일체의 집회 금지
3월 31일	동작구 ▲노량진역광장 ▲노량진로▲장승배기로▲구청주변 등 집회·시위 행위 금지 1개월 연장
5월 6일	서울시, 미술관·박물관 단계적 개방하지만 집회·시위는 계속 금지 유지
5월 11일	서울시 강남구 방배5구역 강제철거
5월 15일	강남구 ▲영동대로 ▲봉은사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학동로 전체 및 인도에서 집회·시위 금지
5월 18일	종로구청, 아시아나 항공기 청소노동자 천막 농성장 강제철거(1차)
5월 26일	종로구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 ▲우정국로~안국로터리 주변 및 인도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를 포함하는 7구간에 대해 집회금지
6월 16일	종로구청, 아시아나 항공기 청소노동자 천막 농성장 강제철거(2차)
6월 23일	종로구청, 아시아나 항공기 청소노동자 천막 농성장 강제철거(3차)

강북은 안되고 강남은 되고, 서울은 안되고 창원은 되고
기간과 대상, 위험예방 등을 검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서울시 집회 금지,
지자체별로 자의적 집회금지 구역 설정

03 무엇을 위한 안전인가

추모의 불평등, 집회금지를 낳은 불평등

설명을 입력하세요

03 집회가 불안한 사람들! 집회와 방역은 대립하지 않는다

유엔평화적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코로나19시기 집회및 결사의 자유 10대 원칙

1. 새로운 법적 조치가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것
2.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인권 침해의 구실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위기는 일반적인 권리 나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3. 민주주의는 무기한 지연될 수 없다.
4. 시민 사회의 포괄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5. 온라인상의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적용된다.
6. 직장에서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것.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노동조합 내에서 노동조합과 다른 형태의 결사를 형성 할 권리로 확장되며, 평화로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파업의 권리로 확대된다.
7.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8. 다자간 기관에 대한 시민 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
9. 국제적 연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10. 코로나-19가 미칠 향후 영향과 개혁에 대한 대중의 요구에 응답하기

행정권력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03 집회가 불안한 사람들! 집회와 방역은 대립하지 않는다

유엔평화적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공중위생 위기상황에서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체크리스트

1.
-그러한 구체적 코로나-19 관련 위협을 다루기 위한 긴급 조치는 필요하고 비례적인 것이다. 이는 부과된 제한이 최대한 덜 침해적이고, 적절하고, 그 보호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면밀하게 맞춰졌으며, 해당 상황에 대한 대응 범위 내에서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었음을 의미한다.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사항 없음

-이동과 모임에 대한 제한은 예외를 허용하여 시민사회 행위자, 특히 언론인, 노조, 법률 전문가, 인권옹호자, 인도적 지원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이 비상상황 동안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 계획 및 가이드라인과 일치한다. 이러한 예외가 지켜지고 존중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은 경찰과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사항 없음
2.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조치는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고, 공중 보건의 위협을 다루기 위해 엄격하게 필요한 때만 갱신된다.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사항 없음

03 집회의 권리와 안전에 대해

불안을 만드는 세력들, 국가와 기업

극우세력의 집회로 상징된 낙인

-

집회와 코로나감염을 동일시하게 만든
정부와 극우세력의 행위

03 집회시위의 권리

집회시위의 권리는 원래 혼란스러운 것

집회시위의 권리

설명을 입력하세요

1. 원래 소란스럽고 불안한 것
2 민중의 표현의 자유와 세력화(사회적 소수자)에게 필수적인 권리
3 헌법21조 허가나 검열을 허용하지 않은 것

집회시위의 권리는 민중의 저항권 행사에 동반되는 권리

03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도전

보수세력의 개천절 차량행진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보며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바라보나?

1. 국가가 안전을 구실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할 때의 입장

2 모든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 혐오세력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 당파적 관점에서 집회시위의 권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대안적, 진보적, 반체제적, 민주주의적 관점)
  :가부장적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사유와 입장
  :사회권과 자유권의 통합적 사유 속에서 집회시위의 권리 이해하기 (누구의 목소리가 차단되는가, 누구의 표현의 자유가 차단되는가)

기본권침해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04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였다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

04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였다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장애인과 노숙인 생존하기 위해 모이고 말하고 싸운다

04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였다

체제의 위험에 맞서 집회

전 세계 여성들이 낙태 금지와 인종차별에 맞서 싸워

04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였다

누가 안전한가, 혼자서 살수 있는 사람들

휴양지와 넓은 별장에서 물립적 거리두기를 하는 부자

유럽 3대 국가 코로나 치명률과 병상 수

	영국	프랑스	독일
치명률(확진자 대비 사망자)	12.8%	10.9%	2.5%
인구 1000명당 병상 수(2017년)	2.5개	6개	8개

자료=OECD·존스홉킨스대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현황과 격리 환자 규모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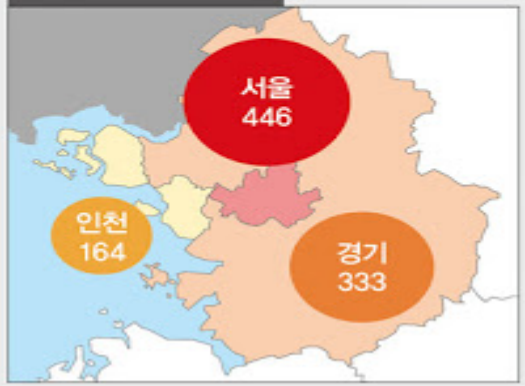
※6월17일 0시 기준

병상 현황 (단위: 개)

수도권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47
전국 중환자 치료병상	126
감염병 전담병원 남은 병상	959
생활치료센터 (이번주부터 운영 시작)	512

※6월18일 0시 기준

격리 환자 규모 (단위: 명)



04 창발적인 집회시위 방식

함께 머리를 맞대다

아궁이 속에 들어있던 알밤은 호랑이 머리에 헤딩을 하고, 물동이 속에 숨어 있던 자라는 호랑이 코를 깨문다. 바닥에 있던 물찌똥이 호랑이를 미끄러뜨리자, 호랑이는 송곳한테 똥침을 장렬하게 맞은 후 문 밖으로 도망치다가 문 위에 매달린 맷돌에 머리를 찍히고 멍석에 말려 지게에 실려 강물 속에 집어던져져 최후를 맞이한다(달걀, 자라,알밤의 연대)

코로나19가 불평등의 체제를 드러내다

위험의 불평등을 마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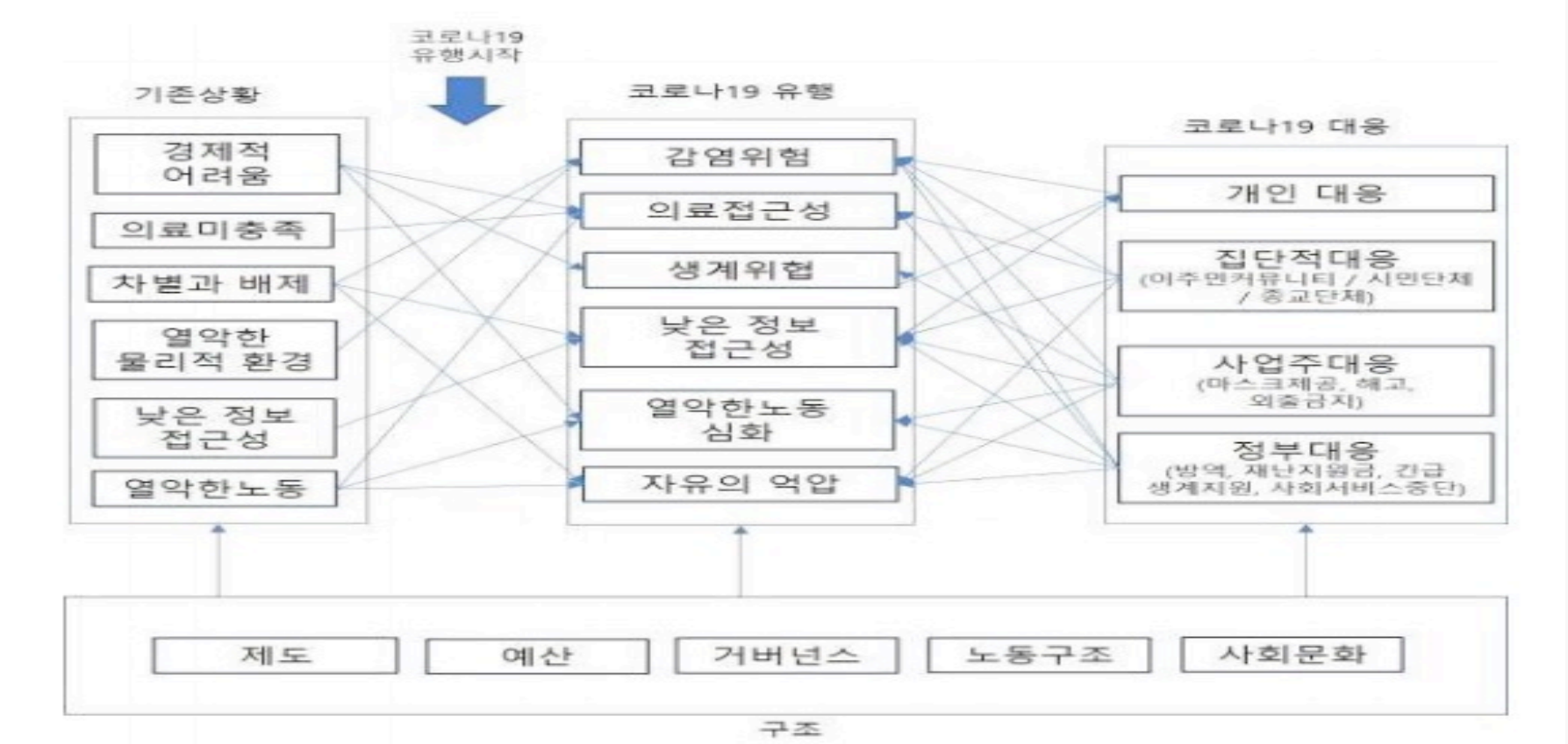


그림 2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취약집단의 어려움과 영향요인

코로나19시민백서 중 위험의 불평등

인권과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인간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사회적 소통과 참여보장, 의사결정의 원칙

나오며 남는 질문들, 안전과 연결성에 대한 사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들
인간세계를 뛰어넘는 불평등
탐욕의 체제에 맞서 싸우기
낙인과 통제를 넘는 사회적 안전권으로

설명 어떤 안전인가를 질문해야
- 행동과 사유를 요구하는 시대
-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대
- 실천과 연대

어떤 안전인가? 어떤 체제를 상상할 것인가

안전은 어떻게야 확보될 수 있는가. 어떤 안전인가
자유권적 안전만이 아닌 사회권적 안전권

자연을 파괴한 인간의 재앙
자연도 지구의 구성원이다, 존재의 위계, 몸의 위계

이윤중심의 자본주의체제가 낳은 비극, 펜대믹
돈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체제

Q & A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